

# 노인돌봄서비스 개인 맞춤형으로 바뀐다

## 광주시 사업 설명회

### 6개 유사 서비스 통합하고

### 안전지원·사회참여 등 중점

### 내년 1월부터 전면 개편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전면 개편된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자치구 공무원과 노인돌봄사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지난 2007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시작해 200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지원지원 등의 사업이 추가돼 독거어르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유사·분절적 사업 수행과 사업간 칸막이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다양한 돌봄요구 충족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예컨대 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가 기능 약화로 종합서비스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기본서비스 수급이 불가하고 물품 후원 등 다양한 돌봄요구 충족이 어려웠다. 또한 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가 병원동행을 원하고 생활관리사도 서비스 가능하나 지원 상 서비스 연계만 가능하고 직접 제공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편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기본·종합 등 6개의 유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돌봄사업은 단순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중심이었으나 맞춤형서비스에서는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 생활 지원 등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돌봄기본 대상자 중 병원동행이나 가사지원 등이 필요한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돌봄종합 대상자는 단순 가사 외에 대상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나 후원물품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만 시범 수행되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도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권역별 책임기관제를 도입해 기존 관내 110여개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개별·경쟁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5개 자치구 19개 권역(동구 2, 서구 4, 남구 3, 북구 6, 광산 4)으로 나누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

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등으로 발굴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도 기존 9000여명에서 내년 1만 2000여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 등 수행인력 또한 270명에서 766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는 9월 말부터 자치구별로 수행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10월말까지 선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11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 수행인력 채용과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 1월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류미수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일괄 제공되던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직위공모제 첫 여성 팀장 임용

### 김경순 주거복지팀장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2019 하반기 인사에서 희망인사시스템과 직위공모제 운영을 통해 여성 팀장을 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최초로 여성 팀장으로 임명된 김경순(사진) 주거복지팀장은 "최초의 여성 팀장으로서 부담과 책임감을 느낀다. 여성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성실함으로 주거약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직위공모제는 여성 유리천장의 벽을 해소하고 관리직 여성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직위공모제에 의한 광주도시공사 첫



팀장 임용과 함께 기획·예산 등 주요 보직에 여직원을 배치함으로써, 향후 여성이 고급 인적 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도시공사는 자랑했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희망인사시스템과 직위공모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감하는 인사제도의 정착, 여성 관리자 확대 등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인사혁신 및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북구, 디자인비엔날레 연계 관광객 유치전

### 시티·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광주시 북구가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담양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생태자원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북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동안 담양군·광주관광협회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티투어, 팸투어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북구와 담양군에 산재한 우수한 관광자원인 누정문화와 생태자원, 문화예술자원을 상품화해 홍보함으로써 지역관광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7회에 걸쳐 디자인비엔날레 특별코스 시티투어를 무료로 운영한다.

시티투어는 송정역에서 출발해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죽녹원, 환벽당, 소재원·식영정, 광주호호수생태원 등 북구와 담양을 아우르는 코스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10월 중 수도권 기자단, 파워블로거, 여행작가 등 2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팸투어를 실시해 남도의 맛과 멋을 알린다.

첫째 날은 문을 담은 주조장을 재단장한 담양 해동문화예술촌과 죽녹원, 담양 용마루길, 메타콰이아가로수길, 가사문 화권 문화재를 탐방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광주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 후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광주대표 음식을 체험한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구와 인접한 시·군, 관광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남도관광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복지재단 복지실천사례 공모전

### 내달 25일까지 접수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복지 36.5°C 복지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일상 또는 복지현장에서 경험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지실천사례'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3일부터 10월 25일 까지다.

최종 심사결과는 11월 20일에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와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시상식은 11월 28일로 예정됐

다.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대표이사 상장과 상품권 30만원, 최우수상(2명) 수상자에게는 대표이사상 및 상품권 20만원, 우수상(3명) 수상자에게는 대표이사상 및 상품권 10만원을 각각 수여된다. 수기를 접수한 시민 중 50명을 추첨해 커피교환권을 증정한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복지실천사례는 나눔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 광주를 위한 시민의식개선 캠페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 시각장애인 50여명

### 지하철 안전체험교육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일 광주시 광산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역과 전동차 내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하철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광역시지부 소속 50여명과 함께 한 이번 교육에서는 지하철 이용 도중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험교육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공사가 특별히 편성한 체험 교육용 인시열차에 실제 탑승해 비상시탈출요령을 체험을 통해 익혔다. 또한, 화재경보기, 화재대피마스크, 소화기, 공기호흡기, 휴대용비상조명 등 역사 내 안전 시설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일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300곳 식품취급업소 일제점검

광주시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나들이철을 맞아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일제점검반(5개반 24명)이 점검을 맡는다.

국립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놀이공원, 푸드트럭 등의 식품취급업소 총 300곳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 및 보관 온도준수 여부 ▲튀김용 유지류와 폐유의 비위생적 보관·운반 여부 등이다. 또 국립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놀이공원 음식점의 김밥, 핫바, 떡볶이 등 조리식품, 도시락 전문점의 도시락, 푸드트럭 판매 식품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산구, 복지부 치매예방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18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주최, 광주광역시치매센터 주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치매예방관리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을 수상했다.

광산구는 지금까지 치매를 감축을 위해 치매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치매파트너·파트너플러스 양성, 60세 이상 노인 대상

치매 조기검진·환자발견·치료관리,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교육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상으로 광산구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안정적 이행, 치매극복 환경문화 조성 등에 공헌한 그간 노력을 인정받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치매예방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며 "치매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사회가 함께 치매를 극복해내는 문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